

# 잇박자 행정에 도로 보상금 날릴 판

### 나주시, 도로 확·포장 구간 편입 건물에 9천 500만원 지급 뒤늦게 설계 변경...공사 구간 빠지자 건물주가 타인에 매매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나주시가 보상금을 지급한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타인에게 매매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확인됐다.

나주시는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지방도 49호선 급전~시계간 확·포장공사 구간의 용지매수를 전남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급전면 석전리 99-5번지의 5필지에 있는 LPG충전소 2층 건물을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도 없이 건물소유자인 박모(54)씨에게 보상금으로 9천571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뒤 철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변경돼 건물 철거가 백지화됐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박씨는 2006년 1월9일 제 3자인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청렴위원회로 사건을 이첩 받은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월 나주시에 관련 보상금을 변상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전남도가 확·포장 공사 설계를 갑작스럽게 변경해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남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곧바로 철거가 예정돼 있는 지장물은 보상금을 지급한 뒤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며 "전남도의 조치에 억울한 점이 없진 않으나 일단 박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급전면 석전리 LPG충전소 건물 일부가 당초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돼 있었다가 갑자기 설계가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가을 가뭄...거북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극심한 가을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해남군 북평면 한 저수지 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졌다. 3천500여 개에 이르는 전남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 7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내년 농사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 전남 어항, 위판 기지 급부상

### 전남도, 오늘 부산지역 대형 선망과 위판 계약

부산지역 대형 선망 보유업체들이 조업지 주변 어항인 목포, 여수, 완도 등의 수협에서 위판토록 하는 협약이 체결돼 지역수협 위판사업이 한층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14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김종식 완도군수, 부산 소재 김임권 대형선망수협장과 (주)통영산업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선망 수협과의 위판지원협약 및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대형선망수협과의 위판지원협약은 고유가에 시달리는 부산지역 선망 보유업체들이 조업지 주변 어항인 목포, 여수, 완도군 수협에서 위판함으로써 부산에서 위판하는 것보다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어획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날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주)통영산업(대표 장창익)은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 수산물가공, 유통,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부산지역 중견업체로서 작년도에 35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특히 이 업체는 완도 농공단지 4천 960㎡ 부지에 125억원을 투입해 연건평 8천260㎡, 3층 규모로 대형선망어획물인 고등어, 삼치, 전갱이 등의 냉·동·냉장 물류창고를 건립할 예정이어서 투자가 성사되면 13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250억원 규모의 매출이 기대된다.

대형선망은 부산지역에 24개 선단이 운영중에 있으며 지금까지는 90% 이상이 부산공동어시장과 경남 삼천포, 통영 등 영남권에서 위판이 이뤄졌다.

/채희중기자 chae@

## '축령산 피톤치드' 관광상품 됐다

### 코레일, 용산~장성 KTX 운행 '자유 트레킹' 상품 판매

국내 최대의 편백나무 조림지인 장성 축령산의 피톤치드가 관광상품으로 출시됐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자유 트레킹 상품인 '피톤치드(路)'를 개발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용산에서 장성까지 매일 한차례씩 KTX 관광열차를 운

행하고 있다.

피톤치드로는 피톤치드와 길을 합성한 것으로, 자연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열차를 타고 장성 축령산에 도착해 자유롭게 트레킹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여행 상품이다.

트레킹 코스는 축령산 자락인

서삼면 주암마을에서 북일면 금곡영화마을까지 약 6km로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이 260ha에 걸쳐 펼쳐져 있다. 트레킹 코스 중간 중간에 숲터가 될만한 공간이 있어 여행자들이 한가롭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장성군은 열차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장성역에서 축령산을 오가는 군내버스를 신설했으며 축령산 곳곳에 이정표를 설치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 명랑대첩제 '세계 굿 페스티벌' 인기몰이

### 작두타기 등 관심 집중

411년 전 나라를 구한 충무공이 순신의 명랑대첩을 재조명하는 명랑대첩축제가 해전 재현에 이어 굿 페스티벌, 마당놀이 등 화려한 볼거리 연출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전남도는 13일 평일에도 5만여 명이 몰리는 등 지난 11일 개막한 명랑대첩축제가 3일 동안 28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처럼 명랑대첩축제가 인기몰이에 나선 것은 '황조별묘', '도깨비나무 이야기' 등 명랑 21품 마당놀이 출연진이 주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연기실력을 발휘하는 등 주민들을 직접 참여하도록 한 뛰어난 기획력이 한 몫하고 있다.

특히 세계 굿 페스티벌 행사 3일째 마지막 날 행사가 치러진 13일



지난 11일 개막한 명랑대첩축제가 해전 재현과 굿 페스티벌, 마당놀이 등 화려한 볼거리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진도 녹진 지역 일대에는 국내외 토속민속 굿 마니아들이 몰려와 자리를 뜰 줄 몰랐다.

굿 참여 프로그램에는 몽골의 전통 탈과 전통악기 마두금 연주에 맞춰 사면적 요소가 담긴 다이내믹한 '사면 퍼포먼스' 공연과 황해도 지방에서 전해오는 '만수대탁구'에는 평소 보기 드문 작두타기 등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인도의 전통무속 굿인 '폐암'이 화려한 색채분장과 함께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진도의 씨깡굿이 가장 높은 인기를 모았다.

축제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서외도개비굿' 등 명랑 21품 마당놀이와 지방무형문화재 제 20호인 '우수염부녀농요'가 공연된다.

/채희중기자 chae@

## 담양 '정책 실명제' 도입

담양군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민원인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키로 하고 최근 운영규칙 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군민의 의무·권리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시책, 예산 절감 등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 및 3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2천 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이다.

실명대상자는 정책수행자를 원칙으로 정책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나 최종결재자, 설계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군보에 공표된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최근 완도 군청 공무원들과 지역 사회 단체가 W 지역신문의 왜곡보도로 군정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완도군이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와 공갈 등의 혐의로 고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완도군과 이 신문은 수년 전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검찰 고발, 소송 제기 등을 되풀이하면

발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산물 소비 부진 등으로 완도군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완도군청 공직자들과 지역민들이 합심해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는 등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역신문의 무

## 갈등 자제하고 지역발전 힘 모아야

서 골이 깊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완도군청 전 공직자들과 완도군 변경회 등 17개 사회단체가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W신문이 잇따라 게재한 5건의 군정 비판 기사가 사실 확인이 안된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군정발전의 발목을 잡는 보도를 자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완도군 공직자와 지역 사회단체들이 언론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 것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계속될 경우 지역



정은조

(사회 2부 완도주재 국장)

조건적인 비판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전북 팔악주 기 운동을 전개해 양식 어민들이 활로를 뚫고 넘쳐 판로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완도군 행정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완도군수 역시 사실에 입각한 비판 보도에는 겸허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지역민들의 염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ejchung@

수원지정, 원산지, 품질, 안전,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주)농산물품질관리원. 대표전화: 011-649-0874

### 남성강한힘

미국 인기브랜드 제품인 강력파워! 남성기능성제품 '유게오'.

### 자신감 상실 · 무기력한 남성

▶ 강한 남성으로의 놀라운 변화  
▶ 강력한 힘 / 확실한 만족 /

30회분: 15만원 (배송비 별도)

▶ 문의전화  
☎ (0505-958-5000)  
☎ (010-8687-7051)

### 초 고유가시대 난방온수 비용의 근심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2008년 초잠전 대덕 심야 전기 보일러

기름값 대비 60~80% 절약효과

- ▶ 지금 전화하면이른 설치완료
- ▶ 복도터 있어서 방음이호 분
- ▶ 전설치후 최대 36개월 보물 납부 가능

이제라도 빠른 가격으로 난방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업자제품 대덕 파출이 심야전기 보일러

무부담금 080-909-0088  
구입문의 010-9459-9373